

##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동향

France's COVID-19 Pandemic Strategy

이지현(OECD Policy analyst)

### 1. 코로나19 확산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

2020년 3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2020년 6월 초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650만 명, 사망자는 약 38만 명에 달하였다(Livecorona, 2020).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단순한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WHO 사무총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정상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WHO, 2020). 이스라엘 역사가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정보 공유와 협조를

기반으로 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민지, 2020). 국가 간의 정보 공유와 조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리 체계는 많은 국가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채새롭, 2020).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비상 상황 사태가 서서히 종료되고 국경 간의 봉쇄가 풀림에 따라 각국의 방역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제2차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럽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들여다봄으로써 해외 방역 체계 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방역 체계 가.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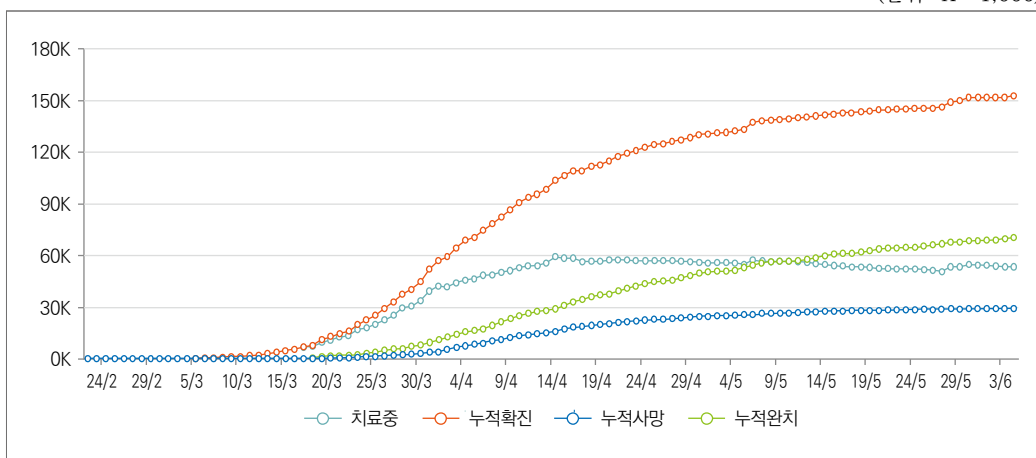
2020년 6월 4일 기준 프랑스 내 누적 확진자는 약 15만 20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사망자는 약 2만 9000명, 완치자는 약 7만 명으로 프랑스 내 코로나19 치사율은 약 19.07%에 달했다(Coronaboard, 2020). 누적 확진자 기준으로 프랑스는 전 세계 국가 중 상위 12위에 속하며, 유럽 내에서는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다음으로 5위에 속한다. 하지만 치사율은 이 다섯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치사율을 보이는 독일 4.7%보다는 세 배나 높다.

[그림 1]이 제시하듯 프랑스 내 누적 확진자는 아직 증가세에 있지만 그 속도가 5월

을 기준으로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누적 사망자 수는 6월을 기준으로 정체기에 들어선 듯이 보인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31일 최대 7578명에 달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Worldmometer, 2020). 4월 초 프랑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 5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지역으로 분류하면 프랑스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인근의 오토센주, 발드마른주, 센생드니주, 그리고 에손주가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Coronaboard, 2020). 파리의 경우 4월 14일에 일일 신규 확진자로는 최대 수 치인 3281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림 1. 프랑스 코로나19 확산 추이

(단위: K = 1,000)



자료: Coronaboard. (2020). retrieved from <https://coronaboard.fr/>

## 나. 정부 발표 문서를 통해 살펴본

### 프랑스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 1) 3월 초 대응 방안

1월 말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월 2일 기준 프랑스 보건부에 따르면 확진자는 130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입원이 116명, 완치가 12명, 사망이 2명이었다(Gouvernement, 2020).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프랑스 정부는 국가 전염병 예방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막기 위해 위험 지역 방문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Gouvernement, 2020). 동시에 5000명 이상 운집을 금하는 집회 금지령을 내렸지만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방 선거의 취소나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당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호흡 곤란을 겪어 프랑스 의료응급구조대(SAMU)에 연락을 해도 일체의 유선 번호가 '15'번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연락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France24, 2020a). 당시 사람들은 증상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SAMU에 연락해 내원 절차를 안내받아야 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일반인은 마스크를 구입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France24, 2020b). 3월 4일 기준 프랑스 정부는 마스크 비축과 생산을 정부

에서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과 코로나19 감염자 혹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Gouvernement, 2020). 이는 사실상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마스크 무용론에 기반하여 증상이 없는 일반인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방침이며,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는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마스크 착용을 중시했던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는 상반된 대응 방식이며, 프랑스 정부가 이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은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문화적으로, 그리고 테러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갖는 유럽인의 보편적 인식과, 마스크 공급난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이유가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2) 3월 12일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담화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신규 방역 체계를 제시했다(Gouvernement, 2020).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 정책

의 최우선 순위가 취약계층 보호라고 선언하고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한 70세 이상자, 기저질환자 및 장애인 등에게 자택 생활을 권고하는 한편 외부 접촉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국내 전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3월 16일부터 모든 유치원 및 초, 중, 고, 대학교 휴교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이한 점은 의료 체계가 최악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전염병의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대신 의료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병상 확보와 의료진 동원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Treve hivernale(동계 기간에 집세를 못 내도 내 쫓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2개월 연장 등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지속하지만 이동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엄격한 통제나 국경 봉쇄 등의 조치는 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유럽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대국민 담화에 이어 3월 14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긴급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방침을 밝혔다(Gouvernement,

2020). 골자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전염병 대응 3단계 격상을 확정하고, 3월 15일부터 모든 식당, 카페, 영화관, 나이트클럽, 생필품 외 상점 등을 일시적으로 폐점하며, 종교 기관은 문은 열되 모든 행사는 연기하는 것이었다. 또 슈퍼마켓, 주유소, 신문 매점, 은행 등 중요한 공공 서비스 기관만 운영을 유지하며, 대중교통은 운행하나 일부 노선은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3월 17일부터 모든 외출 시 이동 확인서(Attestation de déplacement derogatoire)를 프린트 또는 자필 작성한 '종이 형태'로 반드시 지참하되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건비상사태 총리령 공지를 시작으로 이동제한 조치의 강도가 엄격해졌다. 3월 28일 총리 및 보건부 장관 발표에서는 4월 15일까지 이동제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환자 전담 병상을 3월 초 5000여 개에서 1만여 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호흡기 및 의약품 수급 확대와 의료 인력 확충(당시 예비 의료 인력 4만여 명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마스크 확보와 진단 검사의 경우 의료진용 마스크를 국내에서 월 4000만 개 생산하고 추가적으로 해외로부터 10억 개를 확보하겠다고 발

그림 2. 프랑스 이동 확인서 양식 및 작성 방법

해당 확인서는 본인이 알파벳으로 작성, 서명하셔서 외출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ATTESTATION DE DÉPLACEMENT DÉROGATOIR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sup>er</sup> du décret du 16 mars 2020 portant réglementation des déplacements dans le cadre de la lutte contre la propagation du virus Covid-19 :

Je soussigné(e)

Mme / M. 이름

Né(e) le : 생년월일(일일/월월/년년년년)

Demeurant : 프랑스 내 주소(예. 125 rue de grendlc 75007 Paris)

certifie que mon déplacement est lié au motif suivant (cocher la case) autorisé par l'article 1<sup>er</sup> du décret du 16 mars 2020 portant réglementation des déplacements dans le cadre de la lutte contre la propagation du virus Covid-19 : 다음 경우중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 ☐ déplacements entre le domicile et le lieu d'exercice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lorsqu'ils sont indispensables à l'exercice d'activités ne pouvant être organisées sous forme de télétravail (sur justificatif permanent) ou déplacements professionnels ne pouvant être différés;  
재택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확인증 지참)
- ☐ déplacements pour effectuer des achats de première nécessité dans des établissements autorisés (liste sur [gouvernement.fr](http://gouvernement.fr));  
생필품 구매를 위한 이동 (허가된 식품점 리스트 [gouvernement.fr](http://gouvernement.fr) 참고)
- ☐ déplacements pour motif de santé;  
건강상의 이유로 이동
- ☐ déplacements pour motif familial impérieux, pour l'assistance aux personnes vulnérables ou la garde d'enfants;  
가족 구성원 중 노약자, 또는 아이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이동
- ☐ déplacements brefs, à proximité du domicile, liés à l'activité physique individuelle des personnes, à l'exclusion de toute pratique sportive collective, et aux besoins des animaux de compagnie.  
주거지 인근에서 개인적인 운동(단체운동 금지) 및 반려견 산책

Fait à 날짜(일일/월월), le ...../...../2020  
장소(예. Paris) (signature)  
서명

자료: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0). 공지 사항. retrieved from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list.do](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list.do)

표했다. 비의료진용 마스크의 경우 4월 말까지 100만 개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진단 검사의 경우 PCR 검사 역량을 일 5000건에서 1만 2000건으로 확대하고 4월 말까지 5만 건을 검사한다는 목표 아래 진단키트 500만 개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 지원으로는 실업보조금 연장, 사회보장 지원금 재검토 없이 기존 혜택 연장, 영업 피해에 따른 장애 노동자 임금 지원, Treve hivernale 2개월 연장, 기업의 사회 부담금 및 조세 납부 기한 연장(325억 유로),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연대 기금(12억 유로), 3000억 유로 정부은행 대출보증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이어지는 4월 6일에는 프랑스 내무부에서 기존 종이 이동 확인서 작성의 불편 해소와 검문 시 접촉 최소화를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 이동 확인서 양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지속되는 이동제한에도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자 4월 8일에는 긴급 공지를 통해 파리 및 5개 지역(이블린주, 오드센주, 발드마른주, 발두아즈주, 센에마른주)에 조강과 같은 야외 운동 목적의 외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3) 4월 13일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담화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의 골자는 5월 11일까지 이동제한 및 EU 외 국가에 대한 국경통제(입국 금지) 유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예: 소규모 사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프랑스 정부-지자체-기업 연대기금 마련)였다(Gouvernement, 2020). 또 5월 11일 이후 점진적 경제활동 재개와 학교 수업 재개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모든 대중이 일반인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스크 대량 공급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이어 필리프 총리는 4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과 구체적인 향후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중환자 수가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중환자 전담 병상을 1만 500여 개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수용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의료진용 마스크의 경우 국내 생산 증가와 수입 재개를 통해 평균 소비량(주 4500만 개)을 초과하는 재고(자체 생산분 주 800만 + 수입분 8100만)를 확보 중이라고 발표했다. 5월 11일부터 대중 마스크(masque grand publique) 물량 공급을 위해 노력하

고 진단 검사를 주당 15만 개에서 5월 11일 5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했다. 이동 제한 해제 시한이 점진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접촉자 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는 앱 'Stop-COVID'의 개발 및 도입을 검토하고 프랑스 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파스퇴르 연구소를 포함한 30여 개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가오는 여름을 기한으로 백신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는 등 보다 중장기적인 방침들을 제시했다.

프랑스 정부의 '5월 11일 이후 이동제한 해제' 계획은 국회에 보고되어 찬성 368표, 반대 100표로 통과되었다. 4월 28일 그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5월 7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공지했다(Gouvernement, 2020). 5월 7일 전 이루어진 중점 사안으로는 5월 11일 이동제한 해제 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 인들도 진단서 없이 4월 27일부터 재사용 천 마스크(70% 차단), 5월 2일부터 수술용 마스크(90% 차단)를 약국, 슈퍼마켓 등지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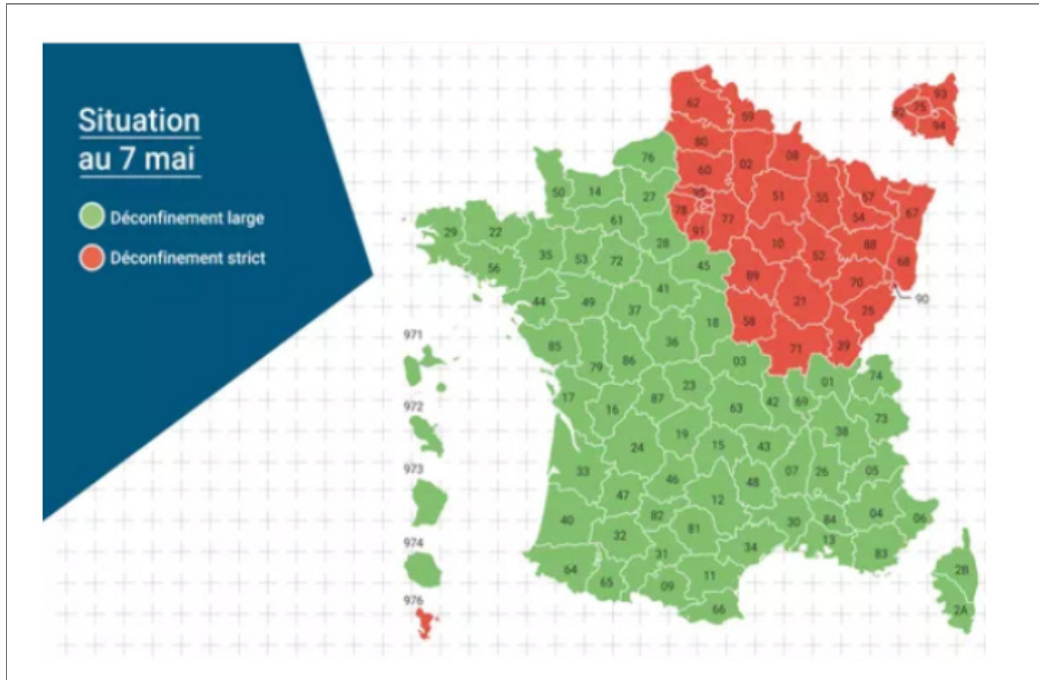
#### 4) 5월 11일 이동제한 해제 계획

필리프 총리는 5월 7일에 '5월 11일 이후 이동제한 해제' 계획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Gouvernement, 2020). 가장 먼저 이동 제한 관련 기본 방침은 점진적으로 제한을 해제하되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해제 혹은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점진적 해제는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첫 번째 단계이며 그 이후부터 여름까지를 2단계로 배정했다. 동시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와 의료 여건 등을 기반으로 지역적 차별을 두어 프랑스 전국을 녹색과 적색 지역으로 구분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치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지역은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공원 개방 및 5월 18일부터 중학교 개학, 그리고 6월 초 카페 및 식당 등 시설 개점을 고려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적색 지역은 보다 엄격하고 점진적인 이동 해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학교 및 공원, 상점 등의 봉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개방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적색 지역은 수도 파리를 비롯한 일드프랑스, 오드프랑스, 그랑테스트, 그리고 부르고뉴프랑슈콩테 등 총 5개 지역을 포함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동 제한 해제와 동시에 코로나19 검진 확대 시행을 발표했는데 '보호, 검사, 격리' 3단계 원칙에 따라 마스크 배포 포함 예방 조치 실시(약국, 슈퍼마켓

그림 3. 프랑스 이동제한 해제 지역적 구별 지정(5월 7일 기준)



자료: Ministère de la Santé / Service Infographie du Figaro,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carte-du-deconfinement-vert-rouge-ou-cinquante-nuances-d-orange-20200429>

등 통해 대중용 마스크 판매 예정), 대규모 진단검사 실시(5월 11일까지 검사 역량 매주 70만 건으로 향상), 추적 정책(확진자 추적앱-Stop-COVID)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에 이동 시 지참해야 했던 이동 확인서는 직선 거리 100km 이내 이동 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100km 이상 이동 시 별도 이동 확인서 양식을 5월 11일부터 사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국경 봉쇄와 관련해서는 최소 6월 15일,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하며 EU 내 이동 허용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제시했다. 국경 개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프랑스 내무부는 프랑스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기한을 기존 3월 16일~5월 15일 만료일에서 5월 15일~6월 15일 만료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소지한 체류증, 임시체류증, 체류허가 및 장기체류비자의

만료일이 3월 16일~6월 15일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그 만료일이 6개월 연장되었다(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0).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색 지역 특히 일드프랑스 지역의 재택근무 지속을 당부하며 노동부가 54개 산업군별 근로 보건지침을 게재하는 동시에 구직자들을 위한 centre de formation 운영 재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계획대로 5월 중순에는 매주 70만 건의 진단 테스트가 가능해졌다(Gouvernement, 2020).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진단을 위해 비강 샘플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RT-PCR 검사를 주로 시행했으며 24시간 이내에 진단 결과가 통보되었다. 진단은 거주지 근처 선별 검진 센터(병원, 검진소, 드라이브 테스트)에서 가능하며 목록은 sante.f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검사 비용은 100% 국가 의료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 5) 6월 2일 이동제한 2단계 진입

6월 2일부터 이동 해제의 2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원칙적으로 이동

의 제한이 아닌 자유가 허용되며 예외적인 제한 조치들이 적용되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Gouvernement, 2020). 경계가 높게 유지되어야 하는 주황 지역인 파리(일드프랑스), 마요트, 기아나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전체가 녹색 지역화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 봉쇄되었던 박물관, 기념관, 해변, 공원의 개방, 그리고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개학을 의미한다. 녹색 지역과 오렌지 지역의 차별이 있다면 녹색 지역에서는 위에 언급된 시설이 전면 개방되고 모든 고등학교가 개학하는 반면 오렌지 지역에서는 테라스가 있는 식당, 카페만 개점 가능하고 선택된 직업고등학교만 개학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동의 자유를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대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 확대되었고(예: 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장소 및 개인 공간 모임 인원 최대 10명으로 제한, 사회적 거리 유지 강조, 대규모 문화 공연 및 스포츠 활동 제한, 재택근무 지속 등이 강조되었다. 동시에 정부가 확산 경로를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는 Stop Covid 추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개통되기도 했다.

### 3. 나가며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

를 입은 국가 중 하나이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던 4월 9일에는 코로나19 치명률이 13.2%에 달해 코로나 치명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당일 프랑스의 전체 확진자는 8만 2048명이었으며,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541명 늘어난 총 1만 869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증가 폭은 전날보다 줄어들었지만,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프랑스 질병통제국장은 사실상 은퇴자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사망 데이터를 취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치명률은 더 높을 수 있음을 제시했다(윤상연, 2020). 비록 현재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사태가 진정되긴 했지만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특징은 국가 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었다.

직접적으로 드러난 마스크 공급, 진단 검사 및 통계 수집 능력을 제외하고도 코로나 사태가 비균등하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화하고 사회 취약층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 빈민가인 파리 외곽의 센생드니주에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노동층에게 경찰이 이동제한령 위반을 이유로 폭행과 차별 행위를 서슴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연일 방화와 폭

동을 일으키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프랑스 국립통계연구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센생드니주의 사망률은 작년 동기 대비 295%나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파리에선 174%, 프랑스 전체에선 61%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내의 의사 600여 명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고도 초기에 충분한 방역 체계를 제공하지 못한 필리프 총리를 상대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사실상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병상 수용력을 축소하는 등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외면한 데 대한 반발로 이해될 수 있다(손성원, 2020).

하지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것이 비단 프랑스만의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국가가 기존 체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이 문제점과 위기를 각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사회경제 회복 및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정부 간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점진적으로 국경 봉쇄가 풀리고,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국제 무역 등이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2차 대유행의 위험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가마다 다른 나라

들은 어떤 코로나 방역 체계를 갖추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2차 대유행을 막고 확산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서민지. (2020). 유발 하라리 “21세기 최대 위기 코로나19, 시민의식 강화와 글로벌 연대로 극복”. retrieved from <https://m.meditgatenews.com/news/1552591000>
- 손성원. (2020). “코로나 대응 무능한 정부에 불복종” 성난 프랑스 시민들.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91728066060>
- 윤상언. (2020). 코로나에 맥뎀추는 프랑스...치명률 13%, 伊 누르고 세계 1위.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751395>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0). 공지 사항. retrieved from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list.do](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list.do)
- 채새롬. (2020). 정부, 코로나19 방역 ‘세계모범’ 자평...“이제 전면적 체계 갖춰”(종합).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8060451017>
- Coronaboard. (2020). retrieved from <https://coronaboard.fr/>
- France24. (2020a). Coronavirus en France: Le SAMU débordé par les appels, retrieved from <https://www.france24.com/fr/video/20200315-coronavirus-en-france-le-samu-d%C3%A9bord%C3%A9-par-les-appels>
- France24. (2020b). Coronavirus: Abrupt reversals on face mask policy raise new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s://www.france24.com/en/20200405-coronavirus-abrupt-reversal-on-mask-policy-in-france-and-the-us-raises-new-questions>
- Gouvernement. (2020). Informations Coronavirus, retrieved from <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
- Livecorona. (2020). retrieved from <https://livecorona.co.kr/>
- Worldometers. (2020). retrieved from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france/>
- WHO. (2020).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 22 April 2020.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22-april-2020>